Diminished Scale의 활용 방법

김형준 , 김대승
청운대학교 방송음악과
e-mail:jazzia@hanmail.net

A Study on Diminished Scale

Hyeong-June Kim , Dae-Seung Kim
Broadcast Music, Chung-Woon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에서는 Jazz는 물론 여러 음악 장르에서 사용되는 Diminished Scale을 Major7, Minor7, Dominant7 Chord에서의 활용 방법을 Jazz의 Improvisation의 관점에서 연구한다. 또한 Upper Structure와의 연계뿐 아니라 Out Line 적인 요소까지 각 코드 기능별 Diminished Scale의 활용을 연구한다.

1. 서론

현대의 Jazz는 Scale과 화성의 활용을 따로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서로 유기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Diminished Scale의 활용도 Improvisation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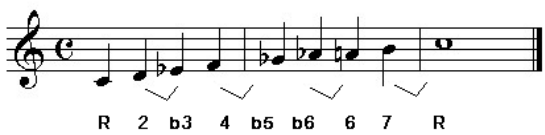
본 논문에서는 Diminished Scale의 기본적인 구성음과 종류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대표적인 Chord에서의 활용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였다. 모든 장르의 음악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는 주요 화성 4가지인 Major7, Minor7, Dominant7, Minor7(b5) Chord를 중심으로 Jazz적인 관점에서 사용가능한 Diminished Scale을 구조적으로 적용시켜 보았다.

2. 본론

2-1 Diminished Scale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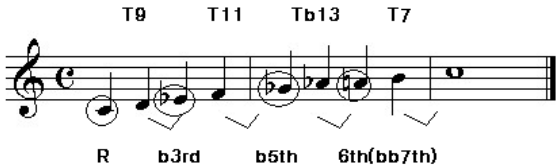
Diminished Scale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온음과 반음으로 연결된 Whole-Half Diminished Scale이다. 일반적인 Scale의 구성 음이 7개라면 Diminished Scale의 구성 음은 8개이다. [악보 1]에서 보듯이 R, 2, b3, 4, b5, b6, ♮6, 7th로 구성 되어있다.

[악보 1] Whole-Half Diminished Scale



[악보 1]과 [악보 2]에서 보듯이 R, b3rd b5th, 6th(bb7th)의 코드 구성 음을 포함하며 '2nd'는 '9th'로 '4th'는 '11th'로 'b6th'는 'b13th'로 그리고 '7th'까지 4개의 Tension을 갖고 있다. 즉, C Whole-Half Diminished Scale은 Cdim7 코드일 때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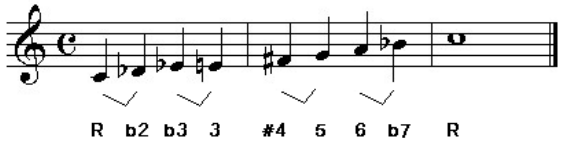
[악보 2] Whole-Half Diminished Scale의 Chord Tone과 Tension



두 번째는 반음과 온음으로 연결된 Half-Who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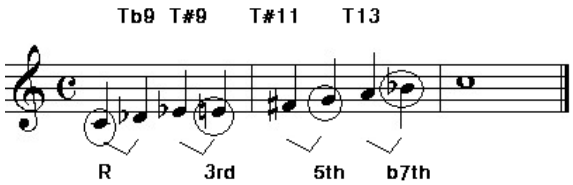
Diminished Scale이다. 이 Half-Whole Diminished Scale은 Whole-Half Diminished Scale과는 다르게 반음이 먼저 시작 되는 것이 특징이다.

[악보 3] Half-Whole Diminished Scale



[악보 3]과 [악보 4]에서 보듯이 R에서 반음위인 b2부터 오고 온음위인 b3, ♮3, #4, 5, 6, b7th의 순으로 반음과 온음이 서로 교차 하면서 나온다. 이러한 Half-Whole Diminished Scale은 R, 3rd, 5th, b7th의 코드 구성음의 기능을 하고 있고 'b2'는 'b9'로 'b3'은'#9'로 '#4'는 '#11'로 '6'은 '13'로 각각 Tension b9, #9, #11, 13의 기능을 한다. 즉, Dominant 7th 코드에서 사용되며 Diminish Altered Scale로 불리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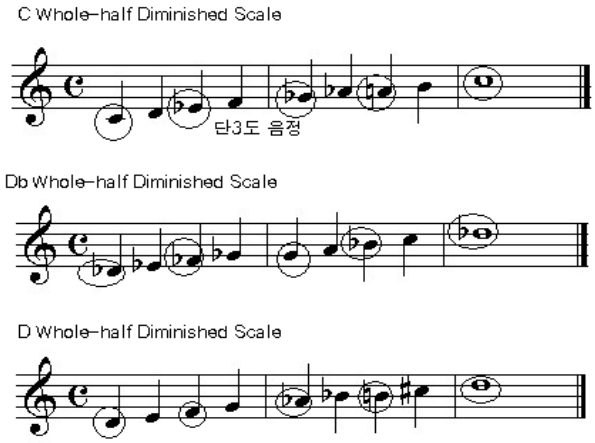
[악보 4] Half-Whole Diminished Scale의 Chord Tone과 Ten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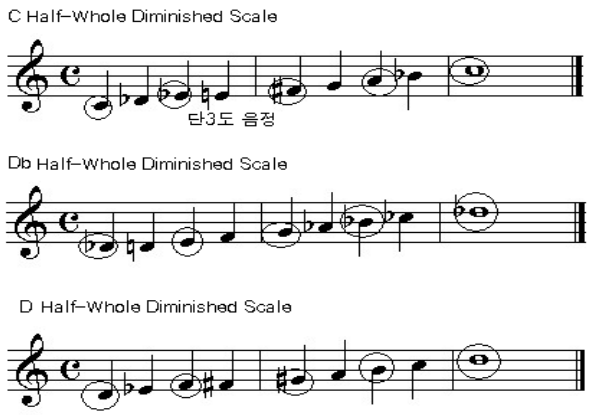
[악보 5]에서 보듯이 Whole-Half Diminished Scale의 3 Key와 Half-Whole Diminished Scale의 3 Key 등 각각 3가지씩 나옴을 알 수 있다. 8개음이 반복 교차되므로 Major Scale등의 7음으로 구성된 Scale은 12음을 Root로 하는 12 Key가 나오지만 Diminished Scale은 3 Key만이 존재한다. 즉, C Whole-Half Diminished Scale은 Eb, Gb, A(bbB)와 단 3도씩 음정관계를 갖고 있으며 시작 음만 다를 뿐 똑같은 구조를 갖기 때문이다. Half-Whole Diminished Scale도 마찬가지로 단 3도씩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은 본 논문의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악보 5] Diminished Scale의 종류

1. Whole-Half Diminished Scales



2. Half-Whole Diminished Sca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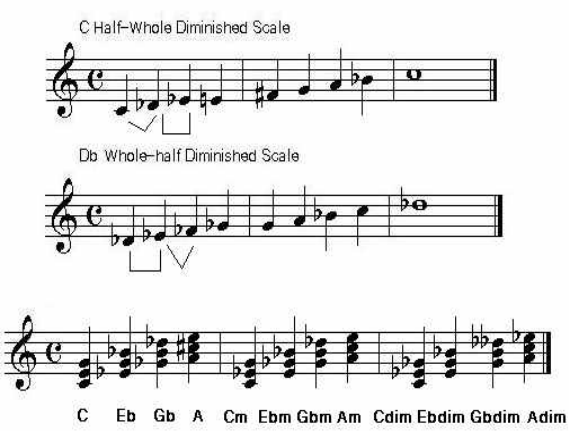


2-2 Diminished Scale의 특징

Diminished Scale은 온음과 반음 또는 반음과 온음의 반복되는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음정의 차이에 의한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은 동일한 기능의 Triad, 7th Chords가 각각 4종류씩 뽑아낼 수 있다. 즉 단3도에 의한 Pattern과 장2도 단2도에 의한 반복적인 Pattern연주를 가능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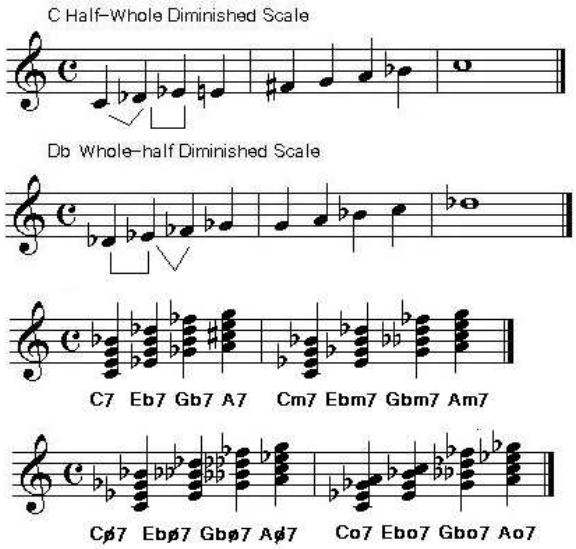
[악보 6]에 보듯이 C, Eb, Gb, A를 Root로 하는 각각 Major, Minor, Minor(b5) Chord가 4개씩 나타난다. C Half-Whole Diminished Scale은 Db Whole-Half Diminished Scale과 순서만 바뀌었고 구조는 같다고 볼 수 있다.

[악보 6] Triad와 Diminished Scale



[악보 7]은 Diminished Scale에서 나타나는 7th Chord를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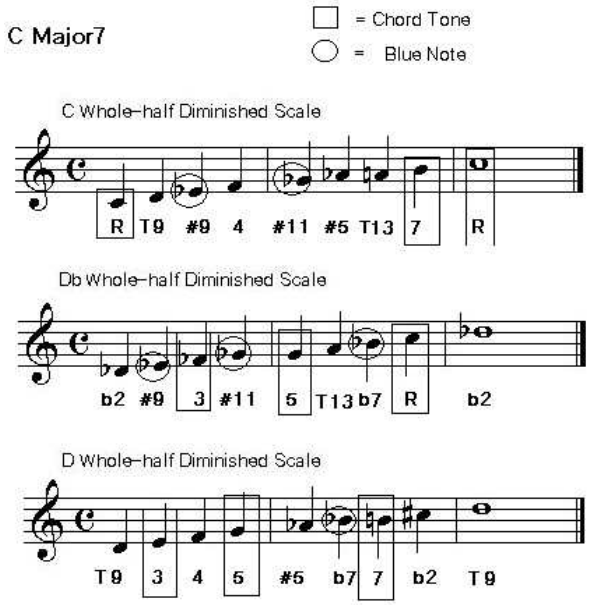
[악보 7] 7th Chord와 Diminished Scale



2-3-1 Major7 Chords에서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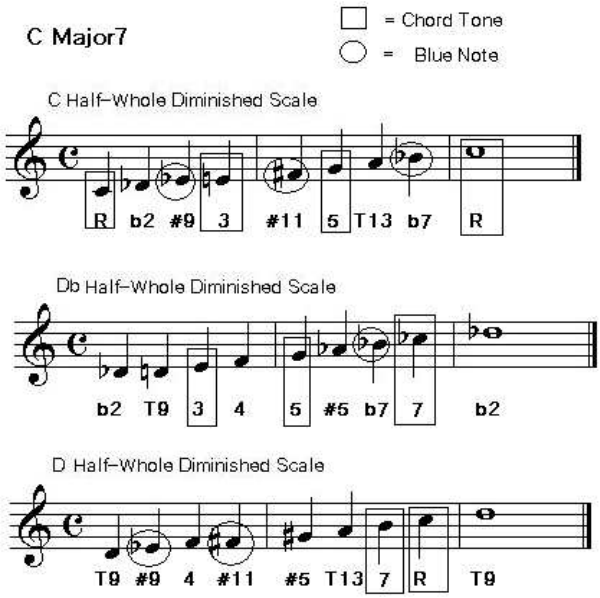
[악보 8]에서 보듯이 Major7 Chord에서 각각의 Whole-Half Diminished Scale을 종류별로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8] C Major7에서의 W/H Diminished Scale



C, Db, D Whole-Half Diminished Scale에서 C Major7 Chord를 중심으로 각 음들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각각의 Whole-Half Diminished Scale에서 Chord Tone이 3개씩 존재했고 Tension과 Blue Note를 포함한 음들이 4개, 4개, 2개씩 나타났다. #5 같은 경우는 Augmented Major7의 코드 구성 음이고 b2의 경우에도 가까운 Root나 ♮2로 단2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Out Line적인 견해에서 본다면 굳이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

[악보 9] CMajor7에서의 H/W Diminished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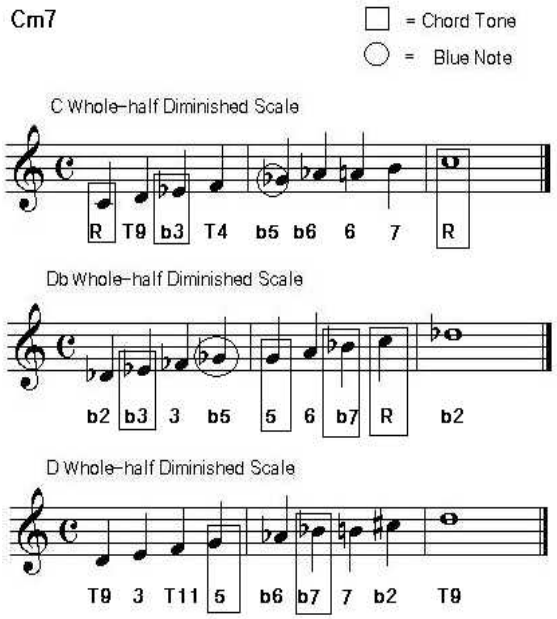


Half-Whole Diminished Scale은 위의 Whole-Half Diminished Scale과 같이 반음-온음-반음-온음의 구조기 때문에 시작하는 음만의 차이이지 구조상으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악보 9]에서 보듯이 같은 구조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2-2 Diminished Scale의 특징*에서 밝혔듯이 [악보 8]과 [악보 9]를 비교해보면 C Whole-Half Diminished Scale은 D Half-Whole Diminished Scale과 같고 Db Whole-Half Diminished Scale은 C Half-Whole Diminished Scale과 같다. 마지막으로 D Whole-Half Diminished Scale은 Db Half-Whole Diminished Scale과 같다. 따라서 C Major7 Chord에서 굳이 Whole-Half와 Half-Whole Diminished Scale로 구분하지 않아도 무방하겠다.

2-3-2 Minor7 Chords에서의 활용

[악보 10] Cm7에서의 W/H Diminished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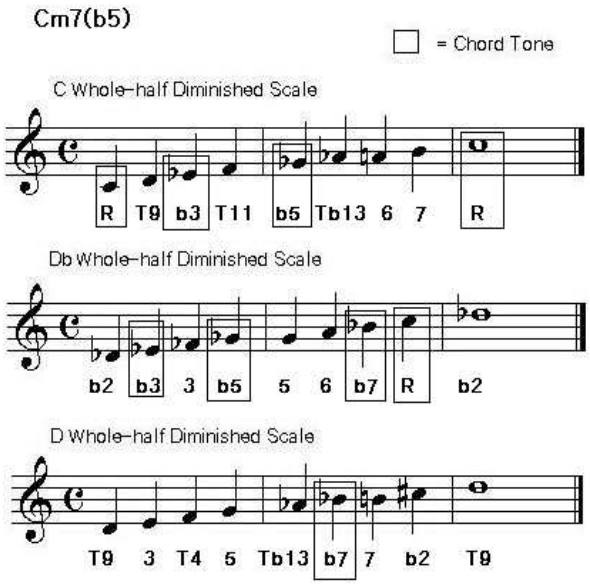


[악보 10]에서 보듯이 Cm7에서 C Whole-Half Diminished Scale은 Root와 b3rd의 Chord Tone을 갖고 있다. b5th는 Blue Note로 보고 6th는 Dorian, 7th는 Leading Tone으로 Root와 연결된다. b6th도 Aeolian Mode에서의 특징 음으로 낯설지 않다. Scale을 알고 있다고 좋은 연주를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연주자의 기량이 일정 수준에 미친다는 전제하에서 C Whole-Half Diminished Scale은 쉽게 다가갈 수 있다. Db Half-Whole Diminished Scale은 [악보 10]에서 보듯이 4개의 Chord 구성 음을 모두 갖고 있다. b2는 전 장에서도 밝혔듯이 Root로 해결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역시 연주자의 역량에 비례하겠다. 3rd는 Major의 성격 음으로 *2-2 Diminished Scale의 특징*에서 나타난 Triad, 7th Chord등의 Pattern으로 연주 하면 좀더 Out Line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D Half-Whole Diminished Scale은 두 개의 코드 구성음 5th와 b7th를 갖고 있다. Tension 9th와 11th 그리고 b2, 3rd b6, 7th도 포함 하고 있다. 위의 두 Scale보다는 좀더 Out Line적인 느낌을 갖고 있다.

서두에도 밝혔듯이 C Whole-Half Diminished Scale은 D Half-Whole Diminished Scale과 같기 때문에 굳이 분석하지 않겠다.

2-3-3 Minor7(b5) Chords에서의 활용

[악보 11] Cm7(b5)에서의 W/H Diminished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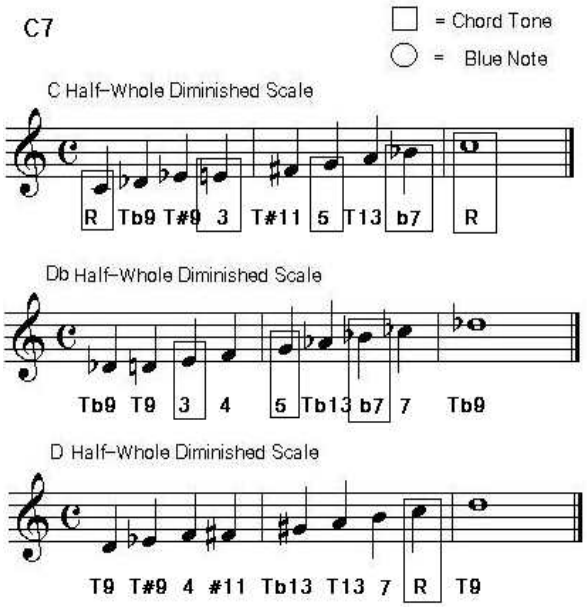


[악보 11]에서 보듯이 Cm7(b5)에서 C Whole-Half Diminished Scale은 Root와 b3rd 그리고 b5th의 Chord Tone을 갖고 있다. Tension 9th, 11th, b13th도 포함하고 있어서 Jazz Minor Mode에서 6번째 Scale인 Locrian♮2(♮9) Scale과 같다. 6th와 7th를

갖고 있지만 반음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In Line적인 Scale이라 할 수 있다. Db Whole-Half Diminished Scale도 코드 구성음인 Root, b3rd, b5th, b7th를 모두 갖고 있어서 In Line으로서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서두에서 밝힌 단3도의 Cm7(b5) Ebm7(b5), Gbm7(b5), Am7(b5) 4개의 코드가 나온다. 즉 Cm7(b5)를 중심에 두고 Out Line에서 In Line으로 해결하는 연주 기법이 가능하겠다. D Whole-Half Diminished Scale은 b7th 하나의 코드 구성 음을 갖고 있다. 앞의 C와 Db Whole-Half Diminished Scale보다 Out Line적인 연주가 가능하다.

2-3-4 Dominant7 Chords에서의 활용

[악보 12] C7에서의 W/H Diminished Scale



[악보 12]에서 보듯이 C7코드에서 C Half-Whole Diminished Scale은 Diminish Altered Scale로써 잘 알려진 Dominant7의 Scale중 하나이다. Db Half-Whole Diminished Scale은 3rd, 5th, b7th의 코드 구성 음을 포함하며 Tension으로 b9th, 9th, b13th를 갖고 있다. 'B'인 7th음은 b7th인 'Bb'으로 하행하면 Bebop Scale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D Half-Whole Diminished Scale은 코드 구성음이 Root 하나이다. Tension은 9th, #9th, #11th, b13th, 13th를 갖고 있다. D Half-Whole Diminished Scale은 Root 이외에는 코드 구성 음이 없기 때문에 위의 두 Scale보다 Out Line적인 Motive에서 사용 가능하다.

3. 결론

본 논문에서 논자는 Diminished Scale을 4개의 기본적인 화성을 중심에 두고 분석하였다. 즉 각각의 화성에서 Diminished Scale이 활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르는 결론은 Diminished Scale은 Diatonic적인 연주 기법으로써의 의미 보다는 솔로 연주자의 Improvisation에 있어서 좀더 Out Line과 In Line을 넘나드는 연주 소재로써의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많은 Scale들 중에서 Diminished Scale은 구조적 특징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4가지 Triad와 7th Chord와 일정하게 반복되는 단2도와 장2도, 단3도, 감5도, 완전5도, 장6도, 단7도등을 이용하여 Pattern의 Motive로 사용 가능함을 알았다.

참고문헌

[1] Wolf Marshall's "The Jazz Theory Book" (SHER MUSIC CO. 1995)
[2] The Jazz Theory Book By Mark Levine (SHER MUSIC CO. 1995)